

自然을 알보면 나라발전 못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우리는
지난 20~30년간 수출과 더불어
외화벌이에만 급급해 온 결과
국민들에게 풍요는 안겼지만
결국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질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자연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연보호운동을 평가한다면
과연 몇점이나 받을 수 있을런지 ...



尹茂夫

〈경희대 생물학과교수 / 조류학〉

자연에서 살아가는 ‘새’를 연구한답시고, 근 30여년 이상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에서부터 환경,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의 요인이 되는 기초적인 문제 등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는 높고, 워낙 땅 덩어리가 좁아 생활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디를 가나 만원이다. 또한 “수출만이 경제적으로 살 길이다”라고 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수출에 주력해 왔다.

外貨와 바꾼 쓰레기더미

과거 20~30여년간 수출과 더불어 외화를 벌어들인데 급급하다 보니 우리가 수출해서 돈만큼 국민들에게 풍요를 안겨 주었지만, 결국은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해서 원시생활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겠지만 그것은 물론 아니다.

모든 과학이라는 학문도 자연에서 기초를 두고 발전해 온 학문이다. 따라서 자연을 무시한 학문은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야기되는 사회혼란은 풍요 이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민들과 학교학생, 사회단체, 국가단체, 매스컴이 각종 사회단체, 마스크 등을 통해서 자

연보호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운동결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몇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본인에게 점수를 매겨 보라면 아마 0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림정책을 잘해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울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이나, 산림청이나, 각 시·도군에서 보호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림이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은 보호정책이 아닌 떨감인 연료혁명에 의한 것이다. 옛날 우리 가정은 두꺼비나 새끼는 나무로 불을 피워 밥이나 반찬을 해 먹어야 하고,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무나 연탄 대신 가스나 기름으로 점차 연료가 대체되므로써 어느새 전국의 산림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 요즘에는 산에 갈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면 전국의 울창한 산림속에 사는 새들이 많아 새들의 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막상 전국의 산림속에 사는 새들을 직접 조사해보면 종류와 개체수가 너무나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공해가 없다는 강원도 설악산이나 남쪽의 큰 지리산 같은데도 높은 산에만 사는 흰배지빠귀, 검은등빠꾸기, 쇠유리새, 되솔새, 산솔새, 굴뚝새, 까막딱다구리 등의 밀도개체수도 너무나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조류들은 일생을 높은 산의 산림속에서만 살아가는 조류들이 아니다. 철새 이동시기는 낮은 논밭이 있는 삼

림, 또 물이 있는 호수, 저수지에서 천적인 매나 황조롱이, 족제비 등을 피해 논밭가의 주변에 울창한 덩굴이 있어야 편안히 쉬고, 잠자고, 숨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새들이 날씨가 추워져서 따뜻한 강남으로 이동하려면 작은 섬을 거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또 월동지 따뜻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와야 튼튼한 알과 건강한 새끼가 태어나서 자연생태계에서 산림에 해로운 해충을 잡아먹고, 아름다운 자연의 새소리가 우리들에게 정서를 주고, 또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에서 새를 사랑하게 되고 학생과 조류연구가에게는 학문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자연이란 것은 물부터 진흙, 갯벌, 모래, 돌, 강가, 호수가 있어야 하고 습지가 있고, 마을이 있어야 하고, 경작지, 야산, 높은 산 등 골고루의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생태계가 있으므로서 이동하는 철새와 텃새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곳은 제일 무서운 천적들이 항상 뒤를 따라 다닌다. 생태계는 천적들이 있으므로서 더욱 강하고 건강한 새들이 살면서 종족을 이끌어가고 서로의 종들이 멸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황새, 엽총에 힘사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 원생동물에서부터 서로가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연을 무시한 환경은 결국 서로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서로 자연을 이해못하다 보니 실수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1974년 4월경 세계

적인 희귀조이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밀렵꾼이 엽총으로 쏘아 잡아갔다.

이 밀렵자가 희귀한 조류라는 것을 알았다면, 또 교과서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총으로 쏘아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바로 밀렵꾼의 총에 맞아죽은 황새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황새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식물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좋은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공해를 유발하는 회사 등을 알아야 경고, 주의, 교육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환경파괴, 공해폐수를 방류했을 때 높은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동식물의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환경보호운동, 무슨 그린운동을 할 것인가.

자연을 잘 지키고, 환경보호가 잘 된 우리 주변 선진국들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나라 동식물 이름을 20~40% 정도 알고 있다고 한다.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은 자연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혹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철새 도래지나 조류 안내를 해 보면 한국 국민들은 너무나 자기나라의 야생화나 새에 관해서 모른다고 지적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우리나라 조류가 3백90여종이나 되는데 몇 종의 새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참새, 까치, 까마귀, 뺨꾸기, 비둘

기, 두루미, 제비, 딱따구리, 방울새, 크낙새 등 기껏해야 10종 내외 밖에 모를 것이다.

그래도 새는 10여종을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천종의 야생화가 있는데, 집 주변의 야생화를 보고 과연 몇종의 이름을 아는지 생각해 보자. 또 요즘 과학고등학교 학생 같은 머리좋은 학생들도 많을텐데 자연의 생물 중에서도 조류학이나 아름다운 야생화 분류같은 교양과목을 넣어 공부시킨다면 얼마나 학생들게 정서적으로 흥미로울까 하는 생각이다.

생태계 파괴하는 인간의 無知

흥미롭다는 것은 자연과학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줄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할 것이다. 요즘 대학에서는 쉽고 편안하고 돈벌 수 있는 인기학문에만 몰리지 필자 전공인 식물분류학 같은 새를 연구하는 학문에는 학생들이 무관심하다.

결국 무지와 무관심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수와 같은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호수인 석호를 무지한 시장 지시 아래 재벌회사가 무자비하게 매립 공사를 하다 시장이 사표를 내고,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조류 전공도 아닌 달팽이 학자가 청초호수의 조류(鳥類)조사를 하는 등 어떤 엉터리 환경평가가 어디 있을까. 결국, 달팽이 전공 영터리교수는 법정에 불러 다녀야 했다.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물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㉞